

Ⅲ. 主要 經濟 懸案

1. 바세나르(Wassenaar) 체제(=新코콤 체제)

- (신코콤의 성립) 94년 COCOM(對공산권 전략 물자 및 기술 수출 통제 체제) 해체 이래의 2년여 협상 끝에 지난 4월 2일 비인에서 대체 기구인 바세나르 체제 발족을 위한 총회가 개최됨
- (주요 내용) 사회주의 진영에 최신 기술이 유출하는 것을 방지를 위해서 성립된 구코콤에 반해, 신체제는 분쟁위험국 등에 일반 무기와 군사 전용이 가능한 민생용 범용품의 수출을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31개국으로 구성됨
- (한국의 가입 효과) 북한이 규제 대상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 안보 환경 측면에서 유리해졌으며, 우리 나라는 회원국 가입으로 선진국으로부터 첨단 산업 기술 이전을 받기가 용이해짐으로써 국내 산업 구조 고도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임

바세나르 체제가 2년 간의 협상을 거쳐 1994년 3월 해체된 COCOM의 대체 기구로 공식 발족됨.

- (개요) 바세나르 체제란 1994년 3월 해산한 코콤을 대신해서 통상 병기와 관련 범용품의 수출을 관리할 신 국제 기구로서 4월 2일 설립 총회를 거쳐 공식적으로 신코콤 체제로 이행하게 될 것임
 - 이번 공식 출범은 구 코콤과 달리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나 구회원국과 일부 신가입국 28 개국이 지난 95년 12월에 합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바세나르 체제의 공식 명칭은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물자 및 기술 수출 통제에 관한 바세나르 체제'(The 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untrie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임
 - 바세나르는 네덜란드의 헤이그 근교 도시로서 1994년 3월의 코콤 해체 이래 2년 동안 다섯 차례의 협상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음. 1995년 12월에 신코콤의 발족이 실무적으로 합의된 장소였음
- (신 체제의 주요 내용) 코콤과 같이 국제 사회 안

바르세나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舊코콤 규제 대상국이었던 구공산권 5개국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규제 대상국인 분쟁위험국으로서 이란, 이라크, 북한, 리비아 4국을 상정한 점임.

- 정도 제고라는 명분은 유사하지만 회원국, 목적, 규제 대상국 및 대상 분야 등에서는 코콤 체제와 바르세나르 체제는 차이를 보임
- 會員國 構成에 구코콤 시절에 규제 대상국이었던 러시아를 비롯한 구공산권 국가(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들이 참여하게 된 것이 특색임: 또한 신규 회원으로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르헨티나와 중립국(오스트리아, 스위스)임. 추가 참여 희망국은 불가리아, 대만 등임
 - 規制 目的에서는 코콤의 목적이 과거 냉전 시대에 공산권의 군사력 강화 억제였는데 반해, 바르세나르 체제는 지역 분쟁의 방지에 주된 목적을 둠
 - 規制 分野는 코콤이 군사력에 활용될 첨단 기술 및 제품을 규제한 것인 데 반해, 바르세나르 체제는 일반 무기와 군사 전용이 가능한 민생용 범용품의 수출을 규제한다는 것임
 - 마지막으로 規制 對象國은 구코콤이 소비에트블럭 및 여타 공산국가들인데 반해, 바르세나르 체제는 회원국의 인접국 또는 이해 지역에 대해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로서 「분쟁위험국(rogue states)」을 지칭. 현재 이에 해당되는 국가로는 이란 이라크, 북한, 리비아가 상정되고 있으나 일부 회원국 특히 러시아가 국가를 고정화시키자 말자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태임

<표> 舊코콤과 바르세나르 체제의 비교

	舊 코콤	바르세나르
회원국(1996년 4월 현재)	21개국(NATO 중심)	31개국(구공산권·중립국·개도국이 추가 회원으로 가입)
규제 목적	공산권의 군사력 강화 억제	지역 분쟁 방지
수출 규제 분야	첨단 신기술·제품	일반무기 및 민생용 범용품
규제 대상국	소비에트 블럭 및 여타 공산국	분쟁위험국(현재는 이란, 이라크, 북한, 리비아)

新체제는 분쟁 방지를 예방하는 기구로서 의의를 가질 것이지만, 강고했던 舊코콥과 달리 협력 조직으로써 신사협정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음.

외교·안보적으로 입지가 높아지는 측면과 산업 기술 측면에서 국내 산업 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임.

- (문제점) 신체제가 국제 사회 안정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질 것이지만, 구 코콥에 비해 규제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임
 - 바세나르 체제의 성립으로 '다자간 대량 파괴무기 확산 금지 체제'(미사일 기술 수출 통제 체제(MTCR), 핵공급국 그룹(NSG), 오스트리아그룹)와 함께 국제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체제의 양대 축이 형성됨으로써 국제 사회의 안정도를 제고시킬 것이라는 의의를 가짐
 - 그러나 높은 위기감속에 발족되었던 구코콥과 달리 신체제의 경우는 그 완만한 협력 조직으로써 신사협정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음
 - 규제 대상국을 명확히 하여 규제국에 수출을 할 경우 회원국의 동의가 반드시 요구되는 등의 엄밀한 운용을 했던 구코콥과는 달리, 대상국인 분쟁위험국 범주 설정에서도 미국과 러시아간 견해차가 존재함
- (바세나르 체제 가입의 효과) 외교 안보적으로 국제적 입지가 높아진다는 측면과, 선진국의 핵심 기술 획득과 정보 수집 등의 기회가 용이해짐
 - 신코콥 체제의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국제적 위상 및 산업 기술적인 측면의 혜택도 생기게 될 것임
 - 1995년도의 전략 물자의 수출은 169건의 39억 달러였고, 수입은 816건 3억 달러로 아직 많지 않으나 가입으로 교역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수출 증가 예상 품목으로는 주로 주문형 반도체, 탄소섬유, 광케이블, 공작기계, 순전자 교환기 등이며 수입 증가 예상 품목은 CNC공작기계, 공정도 시험장비, 첨단 소재 등임

(류 재 현)